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국채 금리 계속 상승…2년물은 작년 이래 최고치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이란, 양국 회담 “주요 진전 이뤄”
- CNBC: 밴스 미 부통령도 “매우 좋은 진전” 긍정 평가
- CNBC: 이란의 강공 입장에 호르무즈 선박 운항 차질

[오일]
- YahooFinance: IEA, “미 이란 갈등해소로 내년에 오일 공급 과잉 직면”
- CNBC: 오일 가격 하락.. 브렌트유 78달러

[트럼프 관세]
- Bloomberg: 트럼프 새 관세 도입으로 각국 명암 엇갈려
- Bloomberg: 중국, MP 머티리얼즈 등 미 2개 희토류 업체 제재

[인공 지능]
- Bloomberg: 엔비디아, 휴머노이드 안전 개발 강화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Bloomberg: 아마존 등 할인 행사로 매출 확대 예상
-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금융]

CNBC: 2-year Treasury note yield hits highest since February 2025
미 국채 금리 계속 상승…2년물은 작년 이래 최고치

- 오늘 월요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. 2년물은 지난해 2월 이래 최고치를 보인다. 투자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 미 주요 인플레를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 협상의 최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.
- 연준의 단기 기준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.221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모기지와 자동차 융자, 크레딧 카드에 사용되는 주요 벤치 마크인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 베이시스 포인트 늘어난 4.4965%를 기록하고 있다. 30년물도 3베이시스 포인트 더 늘어난 4.934%를 기록하고 있다.

기사
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497%	+0.046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65%	-0.008
US1Y	U.S. 1 Year Treasury	4.023%	+0.046
US2Y	U.S. 2 Year Treasury	4.211%	+0.032
US30Y	U.S. 30 Year Treasury	4.94%	+0.039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767%	+0.013
US6M	U.S. 6 Month Treasury	3.931%	+0.031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Iran Cites 'Major Progress' After All-Night Talks With US
이란, 양국 회담 "주요 진전 이뤄"

- 이란과 미국이 2개월 내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이란 측이 밝혔다.
- 이란 외무장관은 "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레바논 관련 긴장이 일부 완화됐으며, 지난주 체결된 양해각서(MOU) 덕분에 이란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시작했다"고 말했다.
- 양국은 이번 주에도 실무 대표단을 통해 세부적인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다. 이번 미·이란 협상의 성패는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CNBC: Vance hails 'great progress' in U.S.-Iran talks despite 'threatening' and 'whining'
밴스 미 부통령도 "매우 좋은 진전" 긍정 평가

- 밴스 미 부통령은 미·이란 협상에 대해 "매우 좋은 진전이 있었다"고 밝혔다. 그는 회담 과정 중 "위협과 불평도 오갔다"고 덧붙였다.
- 이번 협상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예고한 가운데 진행됐다.
-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사찰단 재입국에 합의했다며,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"중대한 이정표"라고 평가했다.

기사

CNBC: Shipping stalls in Strait of Hormuz after Iran declares key waterway closed again
이란의 강공 입장에 호르무즈 선박 운항 차질

- 해양 정보업체 Windward에 따르면, 지난 주말 세계 핵심 유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다시 차질을 빚었다.
- 지난주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이 지역의 유조선 통행량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.
-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치명적인 공습을 지속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, 지난 토요일을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발표했

다.

기사

[오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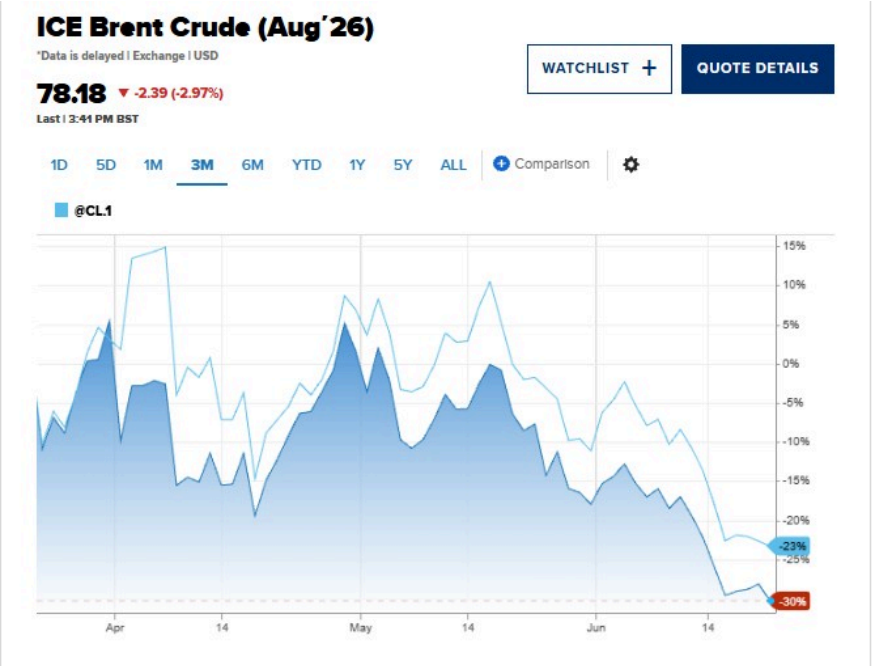
YahooFinance: Oil Market Headed For Massive Glut By 2027 As Gulf Supply Returns After US-Iran Deal
IEA, “미 이란 갈등해소로 내년에 오일 공급 과잉 직면”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생산이 수요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7년까지 심각한 석유 공급 과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
- IEA는 미·이란 갈등 해소로 걸프 지역 생산국들이 폐쇄했던 유전을 재가동함에 따라,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석유 공급이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.
-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하루 공급량이 약 800만 배럴 증가한 1억 1,0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, 수요 성장세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

기사

CNBC: Oil prices fall after Vance says U.S. and Iran made progress in peace talks
오일 가격 하락.. 브렌트유 78달러

-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오늘 월요일 국제유가가 하락했다.
- 미국 동부 시간 오전 기준, 글로벌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은 2.4% 떨어진 배럴당 78.64달러를 기록했다.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선물 역시 1.44% 하락한 배럴당 75.50달러에 거래됐다.
- 벤스 부통령의 회담 긍정 평가에 이어 이란 측도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.

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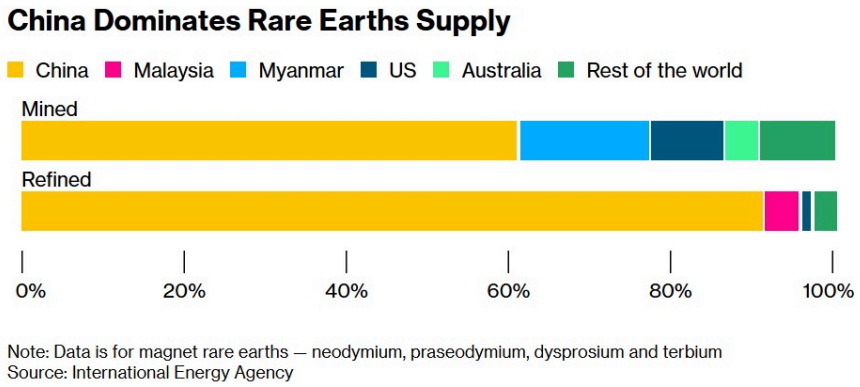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Trump’s New US Tariff Wall Shakes Up Winners, Losers Lineup
트럼프 새 관세 도입으로 각국 명암 엇갈려

- 미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패배 이후에 불공정 무역 혐의를 이유로 여러 국가를 조사중인데, 국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.
-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인해 필리핀,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소규모 경제국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반면에 싱가포르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. 한편 캐나다, 멕시코, 유럽연합(EU), 중국 등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. 이 기사에서 한국은 언급이 없었다.

기사

Bloomberg: China Targets US Rare Earths Firms in Response to Pentagon List
중국, MP 머티리얼즈 등 미 2개 희토류 업체 제재

-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독자적인 시도에 맞서 미국 희토류 업체인 'MP 머티리얼즈'와 'USA 레어 어스'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.
- 다만, 두 업체 모두 이미 중국산 장비와 자재 공급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여서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.
- 이번 조치는 이달 미국 국방부가 중국 대기업들을 '중국군 지원 기업' 명단에 추가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중국 상무부는 설명했다.



기사

[인공 지능]

Bloomberg: Nvidia Seeks to Make Humanoid AI Robots Safer Around Humans
엔비디아, 휴머노이드 안전 개발 강화

- 엔비디아가 인간형(휴머노이드) 로봇이 사람 주변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.

- 엔비디아의 '헤일로(Halos)' 소프트웨어는 로봇의 주변 인식 능력을 높여, 사람과의 안전한 소통과 신체 접촉을 지원한다.
- 엔비디아는 미래 핵심 수익원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기술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. 관련 조사업체; Barclays는 오는 2035년까지 관련 시장 매출 규모가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Amazon Prime Day Spending Expected to Rise 9% to $26.3 Billion
아마존 등 할인 행사로 매출 확대 예상

- 고유가 부담 속 소비자들이 가성비 상품을 찾아 나서면서, 내일 화요일 시작되는 Amazon의 12회 'Prime Day' 온라인 지출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.
- Adobe에 따르면 4일간 US 소비자들은 Amazon과 경쟁사들로부터 전년 대비 9% 증가한 2백63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할인 폭은 지난 여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.
- Walmart와 Target 등 경쟁사들도 자체 행사를 열며 가격 경쟁에 불을 붙였다. 관련 업체 Tinuiti 조사 결과 Amazon 쇼핑객의 60%는 Walmart를, 35%는 Target을 탐색하며 최저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사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695.50	+130.8	+0.25%
US 500	7,468.40	-32.2	-0.43%
Dow Jones	51,699.93	+135.23	+0.26%
S&P 500	7,468.22	-32.36	-0.43%
Nasdaq	26,195.16	-322.77	-1.22%
S&P 500 VIX	17.78	+1.00	+5.96%
Dollar Index	100.667	+0.049	+0.05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29/32	4.940	0.042
10-Year Note	4.375	-3/32	4.499	0.039
7-Year Note	4.25	-2/32	4.380	0.036
5-Year Note	4.125	-2/32	4.274	0.034
3-Year Note	4.125	-1/32	4.229	0.032
2-Year Note	4	-1/32	4.217	0.030
1-Year Bill	0	1/32	4.010	0.021
6-Month Bill	0	1/32	3.921	0.021
3-Month Bill	0	0/32	3.764	0.010
1-Month Bill	0	0/32	3.650	0.007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